

●사순 제 5주일 강론

✠라자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서를 통하여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와 마르타 가족을 편하게 생각하시고 가끔 들려 쉬시는 집인 듯합니다. 그곳에서 오빠 라자로의 죽음을 알려오지만 예수님은 별일 없다는 듯이 자신의 일을 하시다 뒤늦게 그들의 집으로 갑니다.

라자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마르타가 마중하며 슬피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를 위로하시며 오빠는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마르타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은 나자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눈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자로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라자로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으며 그럴 생각이시기에 슬픔의 눈물이라고 보기는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눈물은 당신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준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로 인한 눈물일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했으며 부활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지만 사람들은 그 사건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는 관계없는 죽음의 세계에서 언젠가 먼 훗날에 일어나는 사건정도로 믿고 있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려는 라자로의 소생에 대하여서 아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믿었던 마리아와 마르타까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그런 모습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삶을 가르쳐야 하는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라자로의 무덤 앞에 서서 당신의 권능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보여주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가르고 있는 돌을 치우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마르타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신의 신앙을 직접 고백도 한 마르타가 죽은 오빠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네가 믿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돌은 치워지고 라자로는 죽을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슬퍼하고 있을 때 이러한 사건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눈앞에서 펼쳐지기 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비추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이해가되고 판단이 되는 모습 속에서는 투신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아니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눈앞에서 그 결론에 대한 축복을 먼저 보기를 원하게 됩니다.

마르타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언젠가 다시 부활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서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계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께서서 그 사건을 자신이 보는 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분으로 믿지 못하였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라자로의 소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이루어 내기 위해 방해를 하였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그렇게 충실히 믿었던 죽은 라자로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 구세주인 예수님의 권능에 대하여서는 현실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이 늘 고백하였던 신앙 고백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느님을 믿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의 잉태를 통하여 신앙적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들의 모든 사실들을 주님께 기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혹시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지면 어쩔 수 없는 수준의 기도를 봉헌하는 것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스스로가 포기하면서 기도를 바치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바치신 기도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느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바치신 후 그 감사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라자로야, 나오너라.”

기도는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바쳐질 때 우리에게 오롯한 모습으로 응답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바치며 열심한 신앙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오늘 보여준 마르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수 있습니다.

현실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의심하기 보다는 신앙 속에서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충실히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소일반공지 ●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 ▶바느질교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울프레아 : 매월 첫주일

사 순 기 도

사랑의 창조주여 들어주소서
사순절 재의시기 돌아왔기에
우리맘 눈물흘려 기도하오니
애절한 우리기도 들어주소서
살살이 우리마음 살피시는주
마음의 나약함을 익히하시니
주님께 돌아서는 우리들에게
사죄함 크신은총 내려주소서
저지른 죄악들이 많고크으나
신뢰로 비옵나니 용서하소서
영원히 주님이름 찬미하리니
나약한 우리마음 고쳐주소서
제계를 충실하게 지킴으로써
우리의 육신욕망 눌러이기고
죄악에 빠지는일 아예없도록
마음도 절제토록 도와주소서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시기에
통회의 행위로써 속죄를하고
부활을 갈망하며 준비한후에
마땅한 큰기쁨을 얻게하소서
복되고 복되옵신 삼위일체여
유일한 주님이여 굽어보시어
정성껏 바치옵는 우리제게가
풍성한 열매맺게 도와주소서. 아멘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부활 판공성사 안내

오늘 미사 후 30분
다음주 4:00 / 미사후 30분

● 신임 사목위원 선임 안내

신임 2구역장에 김동규 요한비안나 형제가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우들의 일치를 위해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주 미사후 성가 연습이 있으니 성가대원과 관심있는 교우들의 참가를 바랍니다.

● 친선볼링클럽 대회 안내

어느덧 교우들과 함께 즐거운 볼링 클럽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푸짐한 상품을 준비하였사오니 많은 교우들의 참가와 성원을 바랍니다.

- ▶일시: 3월 31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Brunswick Bowling Centre (전년과 동일)
- ▶문의: 윤명원 행사부장

● 3월 구역모임 안내

- ▶1구역: 15일(토) 6pm 박재영 형제집
- ▶4구역: 21일(금) 7pm 이주현 형제집
- ▶5구역: 29일(토) 6pm 고영호 형제집
- ▶6구역: 15일(토) 7pm 장철원 형제집

● 사순 시기 동안 매주일 4시에 십자가의 길이 각 구역별로 한번 씩 돌아가며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다음 주는 6구역입니다.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 매일 미사책 추가 접수

- ▶신청 ; 박 재영 선교부장 (B)519-578-8690

축 건진성사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건진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 신앙인으로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 부활 판공성사 안내

11일 버팔로, 12일 예수 성심,
13일 해밀턴, 14일 런던

●부활 생활성가 경연대회

- 일시 : 3월 23일 부활 본 날 미사 후
- 대상 : 각 구역 및 공소
- 방법 : 지정곡 한국과 자유곡 한국
- 지정곡 : 엠마우스 OR 살아계신 주

●성물방 책,CD, 성물 할인 판매(3월 한 달)

부활을 맞이하여 성물 방에서 신자들의 영적인 성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물을 할인 판매합니다. 책:30%, 성서,성물: 10%, CD:50%

●한인 꾸르실리오 야외 십자가의 길

일시 : 2008년 3월 15일(토) 2:30 - 3: 30

장소 : sunybrook park(toronto)

주차 : Parking lot#3

참가대상 : 남,녀 꾸르실리스타

●성유축성미사

일시 ; 3월 17일(월) 저녁 7: 30

장소 : 해밀턴 주교좌 성당

참가대상 : 관심있는 전신자

●가족 부활 계란 꾸미기 경연대회

가족들이 합심하여 부활계란을 꾸며서 부활 본 날 미사 때 가져오시면 이쁘게 꾸며진 계란을 뽑아서 시상하는 대회를 가지겠습니다.

2008-10

2008. 3. 9.

사순 제 5주일미사

-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건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 레

해 설 |정경래 차주 해설 이 민

화 답 송 |주님께서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도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122) 구원의 십자가
봉 헌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성 체 (186) 구원을 위한 희생
퇴 장 (55) 착하신 목자

독 서

3 월 9일	정동근	정화순
3 월 16일	홍차근	홍경숙
3 월 23일	이동기	이정숙

봉 헌

3 월 9일	오세종	오미경
3 월 16일	정동근	정화순
3 월 23일	홍차근	홍경숙

복 사

3 월 9일	수빈	한힘
3 월 16일	원영	지현
3 월 23일	경은	현재

2008년 3월 2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820.25
성전건립:	\$ 400.00
감사헌금:	\$ 50.00
Total :	<u>\$ 1270.25</u>